사랑의 재료

(막10:17-31)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재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랑하는 데에 재료가 필요하냐?
사랑하는 데에 재료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 될 수 있고 또 그 표현된 사랑이 지속되고 공고하게 다져지려면 반드시 그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투입되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고 일종의 사기입니다.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동료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넥타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매고 계시던 넥타이를 꺼내서 만지작거리시면서 웃으시며 얘기하셨습니다.
넥타이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포장과 넥타이의 무늬를 보고 사모님이 깔깔대고 웃으시더랍니다.
영락교회 사택이 중부경찰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 앞의 가판대에서 무더기로 넥타이를 쌓아놓고 몇 천원에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드리려고 사모님께서 넥타이를 골랐는데, 사모님께서 웃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모님이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놓아둔 그 넥타이가 선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재밌게 웃었습니다.
'그런 일도 다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봅니다.

비단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넥타이를 선물한다고 할 때, 가판대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파는 넥타이를 물론 매고 다닙니다만, 그것은 사모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살 때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교인이 선물을 한다고 할 때, 더구나 너도 나도 다 알만한 그런 권사님께서 그런 선물을 하셨다, 좀 그래요.
물론 목사님은 감사하게 잘 매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다고 웃으십니다.
제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교육전도사일 때 그런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남자 혁대와 지갑이 들어있는 세트였는데, 그 상자에 아무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오픈 기념식에 나눠주던 것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자기 형편으로 살 수 있는 물건보다 좋은 물건이 들어있을 때 그 박스채로 선물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육전도사인 제게 선물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준재벌이십니다.
그게 과연 교육전도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정성스러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례적인 허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까요?
한번뿐인 인생이라서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연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니까.
그러면 왜 삽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꾸며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성공 못해도 상관없고, 돈 못 벌어도 상관없고,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타적인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리빙스턴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더 많아요.

그러면 삶은 왜 사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chance, 이게 삶의 의미에요.
천당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그 경악할 정도로 놀라자빠지는 황홀경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건 믿음도 사랑도 아니고 그냥 반응일 뿐입니다.
장동건, 배용준을 보고 '야,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chance가 바로 육체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삶의 첫 번째 의미요, 메인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의 재료라는 거예요.
사랑의 재료가 어떤 겁니까?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전토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재물을 대표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다 망라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하나님 사랑을 위한 재료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사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전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의 의미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삶에서 주어진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재료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 사무실 오픈 기념으로 받은 기념품을 가지고 선물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화점 앞 가판대에 무더기로 놓고 파는 넥타이 하나 골라서 목사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재료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정성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돈을 따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권사님들이 목사님께 선물하는 데에 돈의 가치를 갖고 따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성의 문제지…
사랑의 재료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쓴 재료가 뭡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쓴 재료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쓴 재료와 하나님을 위해서 쓴 재료를 한번 따져 보세요.
오늘 부자청년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왔잖아요?
무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집과 형제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린다, 이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재료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가만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신앙의 위인들이 누구인가 하면, 리빙스턴,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리빙스턴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같은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전토를 버렸습니다, 집을 버렸습니다, 친척을 버렸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자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제, 기부금 내는 것,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너희 재물로 표현하라는 얘깁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삭과 하나님, 이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 이삭에 대한 마음의 애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을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애착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사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런 이삭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삭이 없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부자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슬퍼하고 근심했다고 합니다, 슬프다는 말이 참 웃기지요?
자식을 잃을 때 슬프고 돈을 사기 당했을 때 슬프고, 이렇게 슬퍼했다.
돈은 그 의미가 하나님 사랑의 재료에 있습니다.

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삶을 경영하는 것을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경제라고 그래요, 경제.
이 이코노미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고 '노모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규칙 룰, 이런 뜻입니다.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합쳐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코노미, 경제, 돈을 관리하는 것이 경제라고 하면 '집안 살림을 하는 법', 이게 바로 돈 관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집안의 가계를 말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말이 가계에서 나온 겁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집이 필요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인 것이고 그래서 돈을 운용하는 이코노미라

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코노미, 가계를 운용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 가계를 운용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이 기본적인 존재의 부양, 거주, 이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아빠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돈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재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존재를 위한 부양의 문제가 하늘아빠의 염려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내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고 있지만 그렇다고 음식을 사기 위해서 내 존재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돈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야 할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코노미라는 말이 만들어진 경위 자체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데 반해서 우리는 '돈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먹여 살리는 거다', 이게 바로 돈을 재료로 삼아 아버지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이런 부양의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돈을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돈의 힘이 느껴집니다.
돈 안에 권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쓰는 재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아버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삭 키우는 기쁨, 이삭을 통해서 느끼는 인생의 보람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 10억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10억이 있으면 기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이란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돈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기쁨을 '그래, 내가 비싼 명품 백을 사서 기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자!'
이게 바로 돈을 재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로 기대하자.'

이미 내게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으로 얻는 기쁨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이 돈은 공으로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써서 얻는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 얻는 기쁨으로 대체해버렸으니까 돈은 그냥 공으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데, 교회에다 드릴 수도 있고, 기부금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돈 중에서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좋은 가방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실하면.
좋은 빽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빽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빽을 사는 거예요.
'이 빽은 절대 안 돼! 내가 딸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으로 사게 될 때에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줄 수도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지독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로 죽는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십자가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다고 그러지요?
구체적으로 '돈 10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10억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시고, 10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게끔 내 마음이 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요게 있으니까 이걸 사야지!' 그 10억으로부터 사고 싶은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바꾸는 겁니다.
'10억이 있으니까 1억짜리 외제차를 하나 사자, 얼마나 좋을까?' 이것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외제차 대신에 외제차가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외제차 사려고 남겼던 돈, 그 돈은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외제차를 사게 하실 수도 있고, 딴 데다 쓰게 하실 수도 있지요.

돈이 좋지요?
그러니까 좋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료로 삼으라는 얘깁니다.
자식이 좋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료로 삼으라는 얘깁니다.
가판대 위에 있는 넥타이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오픈 기념품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뼈 같고 살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은 그만큼 돈이라는 게 내 마음에서 떼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보혈로 마음을 씻을 때 돈에 대한 접착력이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사랑의 재료를 재료답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집도 귀중합니다.

형제와 자매 부모 자녀 다 귀중하고 내 재물, 피와 같고 살과 같습니다.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